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아직 모든 식품 업종에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건강기능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희망하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되,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용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 등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할 경우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국립검역원에서 담당해 온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 접수 및 검사 업무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사장 홍문표 전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

◆ 홍문표 사장 약력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건국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출신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한나라당)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

정을 수행했다. 또한 지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선대위 농축산위원장을 맡았으며,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사)선행칭찬운동본부 이사장을 맡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